

훌륭한 동기에 훌륭한 연구가 깃든다

김태은

강한 동기를 가진 간절한 연구자는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간절한 연구자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무의식마저 활용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과 나를 지원해준 우리나라에 대한 사명감이다. 이 두 목표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훌륭한 연구자가 되려 한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동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매 순간의 선택이 달라지며 결과의 수준도 얼마나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특별히 연구에 있어 왜 동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동기로 연구하는 지를 다루고자 한다.

훌륭한 연구자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훌륭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간절히 원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연구는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제가 몇 년 동안 안 풀리기도 하며, 연구가 잘 풀린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이번 달 월급이 오르지도 않는다. 이런 긴 인내의 시간은 간절한 장기적인 목표로만 견뎌낼 수 있다.

강한 동기를 가진, 즉 간절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다. 먼저 도전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실패가 두렵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기에 원하던 원치 않든 도전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둘째,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사소한 문제를 풀기에는 자신의 자원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셋째, 무의식을 활용하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온통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간절한 연구자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도전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실패가 두렵거나 현재에 만족해서이다. 그러나 간절한 연구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실패보다 시도해보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훌륭한 연구를 할 기회가 될 지도 모르는데 왜 그 도전하지 않겠는가? 또한 간절한 연구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 이루지 못한 간절한 목표가 있는데 왜 현재에 만족하겠는가?

도전과 관련해 연구를 하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두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주도하는 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조하는 연구였다. 나는 어느 한 쪽의 연구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창의성을 발휘하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필요한 일만 묵묵히 수행했다. 그러나 우습게도 필요한 일만 수행한 연구가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연구는 내가 보조하는 연구였다. 내가 보조하는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구현과 실험을 내가 진행할 부담이 없었기에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내가 주도하는 연구에서는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부담이 되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나의 태도를 어느날 발견하고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왜 연구하는지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간절한 연구자는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다. 훌륭한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자는 사소한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연구자의 가장 값비싼 자원이다. 연구의 재미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가장 값비싼 자원인 시간이 공평하게 24시간씩 주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을 쓰는 지가 관건인데, 중요한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중 “어디”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아는 바로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알고리즘은 없지만, 어느정도 쓸만한 판별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진행할 때 (더 바람직하기로는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내가 푸는 문제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문제는 아닌가? 아직 학생일 때 분야를 종결하는 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모두가 공감하고 누군가 풀어주기 원하는 문제를 공략할 필요는 있다.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문제는 적당히 좋은 숫자를 만든 후 논문까지 이어지더라도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자신에게서도 잊혀진다.

간절한 연구자는 무의식까지 활용해 연구를 할 수 있다. 정말 간절히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것이다. 출근길에, 점심을 먹으며, 잠에 드는 순간까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말 꿈에서도 연구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다양한 선배 연구자들의 일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행복하게 하루종일 자신의 연구 문제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며 다양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말 간절한 연구자는 자신이 풀고자하는 문제를 잘 드러내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단순한 예제를 만들어 활용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을 보면 껌 오래 씹기 캠페인에 도전하는 한 아이가 등장한다. 이 아이는 불가피하게 다른 음식을 먹거나 잘 때는 씹던 그 껌을 귀 뒤에 붙여놓았다가 가능할 때 다시 꺼내 씹으며 3개월을 버틴다. 마찬가지로 간절한 연구자는 자신의 예제를 마치 껌을 씹듯 수시로 바로바로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제를 3개월쯤 씹으면 문제가 어떻게든 풀리지 않겠는가? 적어도 최소한 이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간절하게 하는가? 훌륭한 연구를 하고 싶도록 하는 나의 간절한 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명감이다.

나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 사람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 내 경우는 명예이다. 내가 힘들게 노력한 것이 의미가 있길 원하고 그것을 세상이 알아주길 원한다. 그래서 연구를 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질문을 받는 순간이다. 발표 후 질문 시간이나 포스터 세션, 심지어는 이메일까지 누군가 내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질문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것이 내가 회사가 아닌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을 하든 내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영광도 내 것이지만 비난도 내 몫이다. 따라서 나는 더욱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양심을 지켜야 하며 투명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좋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든다.

또한 나는 우리 나라의 연구자로 성장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학부 과정을 졸업하며 학교를 다닌 9학기 동안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장학금이 모두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이 있다. 무려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내가 모두 감당해야 했다면 졸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국가로부터 거의 전액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받고, 국가 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 즉, 국가가 나의 가능성을 믿고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받은 만큼, 그리고 그 이상 국가에,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것 모두 우리 나라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돌려줄게 뭐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런 사명감도 나를 간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 두 목표를 나의 무기 삼아 나도 훌륭한 연구자가 되려 한다. 인류 사회에 유의미한 공헌을 하고 이를 인정 받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연구자로서 훌륭히 성장하는 목표는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 나는 더 도전할 것이며, 더 중요한 문제를 풀 것이며, 내 시간을 틈틈히 쏟아부어 무의식으로도 연구할 것이다.